

보 도 자 료

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

◆ 홍보팀
(팀장 이지영, 담당 강민구)
Tel : 032-770-8630, 8631
Fax : 032-770-8709
◆ 2018. 10. 5.(금) 배포
◆ 총 4쪽 (본문 2쪽, 첨부 2쪽)

“남극 연구, 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”

극지연구소,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소형선박 ‘세종호’ 도입

- 극지연구소 (소장 윤호일)는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과 물품 보급을 위해 두 척의 소형선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.
- 세종과학기지에 가기 위해서는 남극반도 킹조지섬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뒤 배를 타고 10km 정도 바다를 건너야하는데, 기존의 고무보트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, 유빙 (流氷)으로 인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.
- 신형 선박에는 혹한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마련되며, 유빙을 관찰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선박이 뒤집혔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자가복원 기능 등이 탑재된다.
- 날씨의 제약을 덜 받게 되면서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더 넓은 지역을 더 긴 시간 동안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, 응급환자를 가까운 국가로 이송하는 등의 위기관리 능력도 향상될 전망이다.

- 또한, 해저지형 탐색이 가능한 다중빔 음향 측심기와 바닷물을 채집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설치돼 고무보트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해상 연구도 가능해졌다.
- ‘세종호’로 이름 붙여진 선박들은 최대 2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180마일을 운항할 수 있으며, 정원은 다목적선이 10명, 수송선은 15명이다.
- 5일 (금) 부산에서 진수식을 갖는 세종호는 10월말 건조를 마무리한 뒤, 올해 말부터 남극에서 시범운항에 들어간다.
-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은 “세종과학기지 설립 30년 만에 고무보트를 대체할 이동수단이 마련됐다”며, “기동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지 운영과 연구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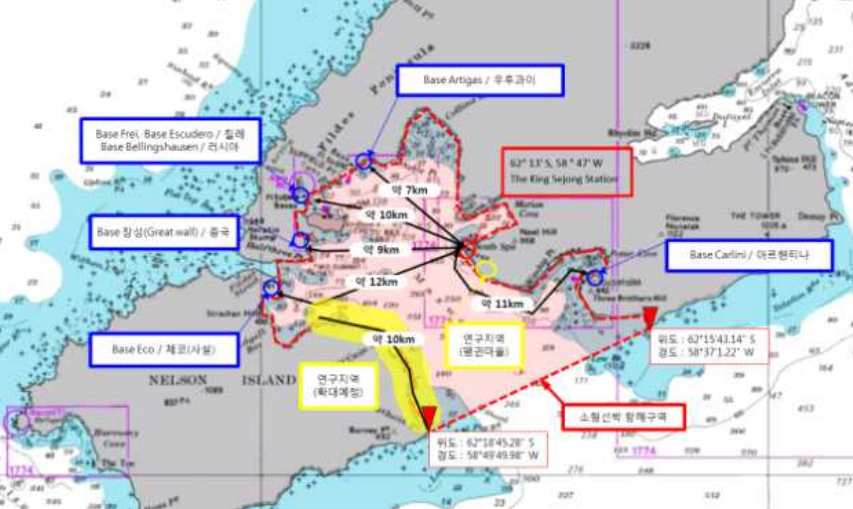
- 첨부1. 세종호 완성모습
- 첨부2. 세종호 항해구역
- 첨부3. 세종1.2호 재원
- 첨부4. 세종과학기지 고무보트의 이동 및 연구활동 모습

극지의 환경, 미래의 도전.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홍보팀 이지영 (☎ 032-770-8630) 또는 (강민구)☎ 032-770-86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1 **세종호 완성모습**



첨부2 **세종호 항해구역**



첨부3 **세종12호 재원**

구 분	세종 1호(다목적선)	세종 2호(수송선)
선체형상	선수부 램프와 하우스를 갖춘 선수 개방형 선박(Landing Craft) 내충격성과 자가복원이 가능한 선박	
선체재질	해상용 알루미늄 합금	
전장x전폭	10.5 x 3.17 m	
총톤수	4.97톤	4.95톤
최대속력	25 노트 이상	
항속거리	약 180 마일	
승선인원	10명 (승조원 2명+승객 8명)	15명 (승조원 2명+승객 13명)
적재능력	약 2.0톤	
추진기	250마력 선외기 2EA	
발전기	5.5 kW	
공통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화상카메라/써치라이트 외부조종콘솔 JPO(Joystick Piloting for Outboards)시스템 	
연구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데빗/원치 - CTD용원치 - 다목적원치 - 다중빔음향측심기 	-

첨부4 **세종과학기지 고무보트의 이동 및 연구활동 모습**

